

허락 作 '법화경 변상도'. 허락 작가는 금사경 계승을 서원하고, 현재까지 다수의 변상도를 비롯해 화엄경 절첩본 전81권 2번 사성, 법화경 전7권 7번 사성, 지장경 전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여자 60여회 사성 등을 마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허락 작가의 작품인생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화엄경 금자장경 100m 이르는 병풍으로…

현담 허락 특별전, 10월 26일부터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서

금자장경 매료돼 오랜 연구해
순금분 · 접착제 황금비율 터득
독창적 기법 작품 총망라 전시
大作 화엄경 병풍 1틀도 공개

인쇄술이 출현하기 전,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널리 성행했던 사경(寫經). 대량인쇄술이 발달한 후에는 수행 정진의 한 방편으로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행적을 찬탄하고 공덕을 기리며 그 길을 따르겠다는 서원으로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는 사경을 행했다.

이러한 사경에 환희심과 전율을 느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가 있다. 현담 허락 작가다. 그는 우연히 통도사 소장 보물 제757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을 보고 한 순간에 금자장경에 매료됐다고 한다. 이후 금사경에 큰 뜻을 세우고 오랜 연구를 진행, 순금분과 접착제의 황금비율을 터득했다.

이후 허락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 등 수상할 뿐 아니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대장경천년세계축제 등에 초대 출품할 만큼 금사경을 통해 널리 이름을 떨쳐왔다.

허락 작가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금사경(金寫經) 작품들이 서울 운니동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에서 10월 25일~11월 8일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화엄경 절첩본 전81권 2번 사성, 법화경 전7권 7번 사성, 지장경 전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여 자 60여회 사성 등 허락 작가의 작품을 총망라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락 작가는 매일 아침 6시 합장으로 시작해 하루 1,500여 자를 사경한다고 한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탈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키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든 작품은 99% 순금분으로 제작되며,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일정한 크기와 간격을 유지해 놀라움을 자아낼 정도다. 이러한 노고 끝에 불교 4대 경전을 금자장경으로 모두 복원하고, 다수의 변상도 작품도 결실을 맺었다.



허락 작가는 현재 100m에 달하는 '대방광불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12틀을 제작 중이다. 사진은 현재까지 완성된 1틀로,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그는 "먹과 달리 금가루는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 발색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접착 효과가 떨어져 쉽게 가루가 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금가루와 접착제 비율을 비롯한 제작기법을 터득했다"면서 "특수 제작된 한지에 포수를 해 물에 적셔도 손상되지 않고 불에 닿지만 않으면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락 작가는 여태까지 화엄경(전81권 약 60만자)을 절첩본으로 2번 사성했는데, 현재 절첩본이 아닌 12틀 병풍으로 제작 중이다. 이름하여 '대방광불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대불사다. 약 100m에 이르는 12틀 병풍에 변상도 81점과 60만자의 사경을 담는 대작이다. 현재까지 완성된 1틀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 측은 "예로부터 사경은 뛰어난 공덕이 있어 재앙을 물리치고 수복을 얻어 나아가 성불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행법이었다"면서 "화엄경 금자장경 병풍 조성에 함께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일 오프닝 리셉션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조교 김묘선(일본 시코쿠 천년고찰 대일사 주지)의 공연이 펼쳐진다. 박아름 기자

부처의 마음을 보다, 불일미술관 관심展

10월 28일까지 1 · 2부로 나뉘어 진행
정소영 작가 개인전 '전통의 맥을 잇다' 16~25일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아트플랫폼 주인공과 함께 2017 산사미술제 '관심전-일가일불(一家一佛), 우리 집 부처님'을 개최한다. 지난해 '달을 담다'를 주제로 처음 실시된 산사미술제는 사찰공간을 활용해 불교미술 작품을 전시, 문화 포교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장이다.

이번 주제 '관심(觀心)'은 2가지 뜻으로 함축된다. 1번째는 '자기 마음을 본다'는 의미의 중요한 수행 가르침이다. 불교미술에서도 '관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해 작가들이 자신의 수행력을 작품에 쏟아 붓는 것으로 의미를 새긴다. 2번째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이다. 불일미술관은 "불모, 금어, 화승의 이름으로 그림 · 조각 · 글씨로 불법을 전하고 그 창작 행위가 수행이 되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있다. 이들의 노력과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훌륭한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그림 못그리는 스님들'이란 부제로 지운 · 진관 · 비공 · 선진 스님이 참여한다. 20일까지. 2부는 '그림 잘 그리는 작가들'이란 부제로 황규철 · 달분 · 서칠교 · 박준수 · 이재윤 작가의 전시가 이어진다. 28일까지.



서칠교 작가의 '행복한 포대화상', 25x15x15cm, 청동,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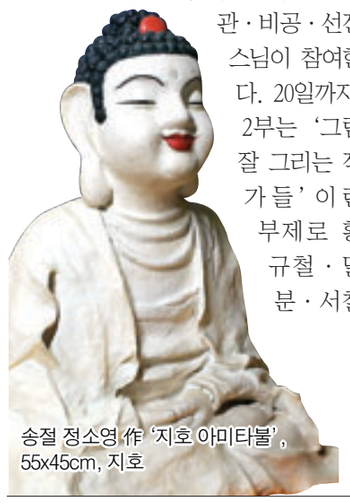
한편 불일미술관은 지호공예가인 송절 정소영 작가의 개인전 '전통의 맥을 잇다'를 10월 16~25일 연다.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오던 한지는 1945년 해방 후 붕괴기를 맞이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한정적 수요, 원료의 부족, 생산성 등으로 인해 전통 방식에서 쉽게 싸고 만드는 방식으로 바뀐 것. 특히 한지로 만든 생활용품인 지호공예는 유물이 매우 한정적이고, 역사서의 기록이나 연구 책자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

정소영 작가는 이처럼 맥이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지호공예를 이어오고 있다. 정 작가는 1989년 천안시공예품경진대회에 '종이 함지방'을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전통공예 맥을 잇다-지호공예〉가 있다.

정 작가는 "소박하게 솜씨를 냈던 시골 아낙네들의 지혜가 전통공예라는 이름으로 예술로서 아름다움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가 한지공예와 분리된 전통 지호공예의 명성을 찾아 한국 전통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733-53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송절 정소영 作 '지호 아미타불', 55x45cm, 지호

청소년 범죄 급증, 해법은 '불교적 인성교육'

'미래사회 인성교육과 불교 역할' 주제 BBS아카데미 방송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올바른 청소년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교계와 정계 · 학계가 모여 '미래사회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지난달 '미래사회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BBS아카데미'를 통해 3주에 걸쳐 방송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 9월 16일 조계종과 노웅래 · 정갑윤 국회의원,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것이다.

1주차(11일)에는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방송했으며, 향후 2주차(18일)에는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방향과 불교적 인성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3주차(25일)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해 각각 방영된다.

BBS불교방송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입시 위주 교육과 무한경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는 불교 교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 불교의 치유와 상생, 불교적 인성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BBS아카데미는 BBS불교방송의 대표 불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된다. 재방송은 목요일 자정,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전 4시 방송된다. 박아름 기자

로터스갤러리, 김희상 초대전 '사람꽃'

10월 30일까지… 희로애락 담아낸 도조인물상 전시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조각가 김희상 초대전 '사람꽃'을 10월 30일까지 개최한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한 표정으로 담아낸 도조인물상인 '사람꽃' 연작은 전통적 도상의 형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불교미술의 도법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나한상(羅漢像)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발현한 자유분방한 모습들로 표현됐다.

김희상 조각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조소전공을 졸업해 '숲으로부터'(서울 인사갤러리, 2001), '일백인' 개인전(서울 코엑스, 2010), '사람꽃-희로애락'(광주 롯데갤러리, 2014) 등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현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아름 기자



김희상 조각가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한 표정으로 담아낸 도조인물상인 '사람꽃' 연작은 전통적 도상의 형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출판기념법회 및 선서화전
수안스님 선화집『행복주머니』



우리시대 선서화의 대가로 잘 알려진 수안스님의 선화집『행복주머니』의 출판기념법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봉행됩니다. 이에 대덕 스님들과 여러 인연 있는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귀한 걸음 하시어 수안스님의 선화집 발행을 축하해 주시고 선서화의 세계를 음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들께서는 아름다운 법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기 2561년 10월 아름다운 날
수안스님 선서화전 준비위원회 합장

파란풍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252면 | 17,000원

일시_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_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 (2층)
선서화전 기간_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5일(일)
문의_ 통도사 문수원 수안스님 011.9398.0025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051.244.0263 / 010.3564.3725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사부대중일동
153-032 서울시 금천구 시흥 2동 234
TEL/ 02-803-4779 FAX/ 02-891-0770 Email : hoapsa@hanmail.net

